

2019년 8월 1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파월 의장 발언 직후 하락폭 확대 파월 “이번 금리인하는 추세의 시작이 아니라 중간 주기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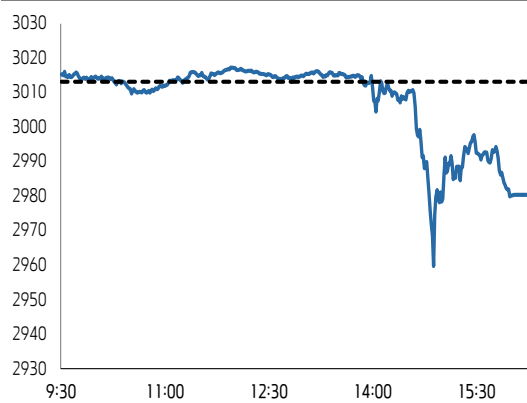
### FOMC 결과와 파월 의장 발언

미 증시는 FOMC 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에서의 긍정적인 요인에 힘입어 상승 출발. 이런 가운데 연준이 금리인하 등을 발표했으나 지수는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특히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며 한 때 2% 가까이 급락. 그러나 파월이 “단 한번의 금리인하를 시사한 건 아니다” 라고 언급하자 낙폭 축소하기도 하는 등 변동성 확대(다우 -1.23%, 나스닥 -1.19%, S&P500 -1.09%, 러셀 2000 -0.69%)

미 증시는 연준의 금리인하 이후 매물 출회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연준은 2008 년 12 월 이후 처음으로 25bp 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발표. 더불어 9 월 종료되는 자산매입 축소 종료 시기도 2 개월 빨리 중단. 연준은 경기 확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이 불확실한 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낮고 글로벌 상황 부담도 금리인하 요인이라고 발표. 더불어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 할 것이라며 추가 금리인하도 시사. 대체로 시장 예상과 부합된 결과를 내놓았지만, 성명서 발표 직후 달러는 강세로 전환 했고, 주식시장은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 전환

한편, 파월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인하에 대해 설명. 이 자리에서 파월은 이번 금리인하에 대해 성명서에서 언급 되었던 글로벌 리스크 및 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를 인하 했다고 주장. 그런데 파월은 “이번 금리인하는 분명하게 보험적 측면이 있다. 추세의 시작이 아니라 중간 주기 조정이다” 라고 주장. 이 발언 직후 미 증시는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달러화 또한 강세폭을 확대.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 연준의장이 언급한 ‘mid-cycle adjustment(중간 주기 조정) 이 문구에 주목하며, 이를 토대로 금리인하 속도가 가파르지 않을 것으로 평가. 이 발언 직후 미 증시는 실망 매물이 출회되며 한때 2% 가까이 급락. 그러나 파월이 “단 한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하자 장 마감을 앞두고 조정폭 축소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024.55	-0.69	홍콩	27,777.75	-1.31			
KOSDAQ	630.18	+0.73	영국	7,586.78	-0.78			
DOW	26,864.27	-1.23	독일	12,189.04	+0.34			
NASDAQ	8,175.42	-1.19	프랑스	5,518.90	+0.14			
S&P 500	2,980.38	-1.09	스페인	8,971.00	-0.17			
상하이종합	2,932.51	-0.67	그리스	899.93	+1.14			
일본	21,521.53	-0.86	이탈리아	21,398.19	+0.5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퀵 시간 외로 5% 하락

애플(+2.04%)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바이오 회사인 암젠(+5.74%)도 전일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AMD(-10.10%)는 급락 했다. 트위터(+3.20%)는 2분기 실적에 힘입어 일부 투자회사에서 투자이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JP모건(+0.35%), 웰스파고(-0.29%), BOA(-0.68%) 등 금융주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금리인하 사이클이 가파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상승하거나 약보합에 그쳤다.

한편, 마이크론(-5.42%)을 비롯해 인텔(-2.22%), 브로드컴(-3.19%) 등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은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언급 한 여파로 하락 했다. 특히 연초 대비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일부 차익 매물 출회도 낙폭 확대 요인이었다.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22% 하락 했다. 퀵(-2.21%)은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매물 출회되며 시간외로 5% 하락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24%	대형 가치주 ETF(IVE)	-0.84%
에너지섹터 ETF(OIH)	+0.84%	중형 가치주 ETF(IWS)	-0.85%
소매업체 ETF(XRT)	-0.12%	소형 가치주 ETF(IWN)	-0.83%
금융섹터 ETF(XLF)	-0.49%	대형 성장주 ETF(VUG)	-1.18%
기술섹터 ETF(XLK)	-1.51%	중형 성장주 ETF(IWP)	-1.0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38%	소형 성장주 ETF(IWO)	-0.78%
인터넷업체 ETF(FDN)	-1.62%	배당주 ETF(DVY)	-0.78%
리츠업체 ETF(XLRE)	-0.4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82%
주택건설업체 ETF(XHB)	-0.8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8%
바이오섹터 ETF(IBB)	-0.66%	미국 국채 ETF(IEF)	+0.26%
헬스케어 ETF(XLV)	-0.99%	하이일드 ETF(JNK)	-0.17%
곡물 ETF(DBA)	-1.48%	물가연동채 ETF(TIP)	+0.16%
반도체 ETF(SMH)	-2.99%	Long/short ETF(BTAL)	+0.8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2.47	-0.53%	-1.44%	-0.23%
소재	365.54	-1.48%	-1.96%	-0.98%
산업재	655.57	-1.05%	-1.22%	+0.49%
경기소비재	954.09	-1.18%	-2.83%	-0.29%
필수소비재	611.23	-1.99%	-0.43%	+1.00%
헬스케어	1,054.04	-0.99%	-1.15%	-2.69%
금융	469.45	-0.43%	-1.01%	+1.33%
IT	1,417.35	-1.47%	-2.44%	+1.50%
커뮤니케이션	169.18	-1.11%	+0.86%	+1.17%
유틸리티	301.90	-0.52%	-0.69%	-1.29%
부동산	231.76	-0.30%	+0.89%	+0.1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제한적인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5% MSCI 신흥 지수 ETF 는 1.23%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746 계약)의 영향으로 1.75pt 하락한 265.1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7.0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시사하지 않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그러나 연준의 이번 행동은 예견된 내용이었으며, 일정 정도 시장에 선반영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어 한국 증시는 조정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시장 변화를 이끌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 월 말 한국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분쟁, 한-일 마찰, FOMC 등 여러 이슈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었다. 이 여파로 거래대금이 하루 3~4 조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 했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은 작은 매물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수급적인 불균형이 조정의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9 월에 추가적인 협상을 하기로 한 미-중 무역협상과 시장 예상과 같이 금리를 인하한 FOMC 결과는 호, 악재를 불문하고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베이다이하 회의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 발표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조정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어가는 8 월 초 변동성 확대구간 이후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늘은 한국의 수출입 통계 및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등 경제지표들의 발표가 있는 날이다. 이들의 결과가 크게 부진하지만 않으면 이 또한 투자심리 위축을 완화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 출발 이후 낙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제조업 지표 둔화 지속

7 월 미국 ADP 민간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고용자수는 전월(11 만 2 천건) 보다 증가한 15 만 6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예상치와 부합된 결과다.

7 월 시카고 PMI 는 전월(49.7)은 물론 예상치(50.5) 보다 부진한 44.4 로 발표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달러 강세 확대

국제유가는 EIA 가 지난 주 원유재고에 대해 850 만 배럴, 가솔린에 대해서는 180 만 배럴, 정제유에 대해서도 90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하자 장중 한때 59 달러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더불어 OPEC 의 원유 7 월 공급량도 자발적인 감축과 이란에 대한 제재 등으로 8 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그러나 무역분쟁 장기화에 글로벌 성장 둔화 가능성이 언급되며 매물 출회되었다. 여기에 FOMC 이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상승폭 축소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FOMC 직후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여전히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2 명의 연준 위원이 있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결과였다. 여기에 파월 연준의장이 이번 금리인하가 금리인하 사이클의 시작이 아니라며 금리인하 속도가 가파르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자 강세폭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예상에 부합된 FOMC 결과 보다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이후 변화가 확대되었다. 특히 단기물의 경우 상승 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mid-cycle adjustment(중간 주기 조정) 이 문구에 주목하며, 이를 토대로 금리인하 속도가 가파르지 않을 것으로 평가해 단기물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장기물의 경우는 미 증시가 장중 한때 2% 가까이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자 하락했다.

금은 FOMC 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다. 시간외로 FOMC 결과 여파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51%, 철근도 0.23%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8.58	+0.91	+4.83	Dollar Index	98.557	+0.52	+0.85
브렌트유	65.05	+0.65	+3.12	EUR/USD	1.1076	-0.71	-0.57
금	1,437.80	-0.28	+0.09	USD/JPY	108.78	+0.16	+0.55
은	16.405	-0.92	-1.33	GBP/USD	1.2159	+0.06	-2.60
알루미늄	1,799.00	-0.22	-1.48	USD/CHF	0.994	+0.36	+0.93
전기동	5,927.00	-0.35	-1.20	AUD/USD	0.6845	-0.39	-1.89
아연	2,444.00	-0.65	-0.61	USD/CAD	1.3191	+0.30	+0.37
옥수수	410.00	-2.61	-4.82	USD/BRL	3.8115	+0.54	+1.00
밀	487.25	-2.01	-2.11	USD/CNH	6.9099	+0.30	+0.49
대두	881.50	-1.70	-2.95	USD/KRW	1183.10	+0.13	+0.44
커피	99.65	+0.15	-1.34	USD/KRW NDF 1M	1187.09	+0.56	+0.9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014	-4.36	-2.84	스페인	0.280	-6.90	-6.10
한국	1.385	-2.50	-7.50	포르투갈	0.339	-6.50	-7.20
일본	-0.153	-0.30	-0.60	그리스	2.020	-3.00	+3.90
독일	-0.440	-4.10	-6.20	이탈리아	1.539	-4.50	+4.80